

# 대불산단 '과학연구단지' 추진

## 전남도 "조선산업 전문인력 양성 필요"... 과기부에 지정 건의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대불산단)의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최근 대불산단을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해 줄 것을 과기부에 건의했다. 이는 중·소형 조선산업 연구단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R&D(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과 차세대 지역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뒤, 오는 5월경 지방과학연구단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대불산단이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국비 150억 원을 비롯 모두 300억 원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내년 중 1만 평의 부지에 3천여 평 규모의 R&D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및 부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4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불산단이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될 경우 R&D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기업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조선 및 연관 산업의 R&D 활성화로 지역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정기자 redplane@kwangju.co.kr



### 고추밭 쌀겨 뿌리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진군 작천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고추밭에 쌀겨를 뿌리고 있다. 쌀겨농법은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1~2개월 후에는 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위정기자 jrwj@

## 소각장 화재로 가동 중단 영암군 쓰레기 처리 차질

### 인근 위탁처리 방침

영암군 영암읍 쓰레기 소각장이 화재로 가동 중단돼 일부 지역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15분경 영암읍 망호리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각시설과 중앙제어장치, 관벽벽 등이 불에 타 가동이 중단됐다.

경찰은 소각로 가동중 전기가 차단되면서 기계작동이 정지돼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액을 조사중이다.

이 소형 소각시설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하루 4.3t을 소각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응급조치로 영암읍, 덕진, 금정, 학산, 미암면, 삼호읍 일부 등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소각시설 정비시까지 인근 군에 위탁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영암군에는 삼호읍과 근사·신북면 등 3개 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 죽은 밍크고래 1마리

### 여수 앞바다서 발견

여수 바다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두문포 남동쪽 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떠 있는 것을 대척호(3.98t) 선장 서모(50)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서씨는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던 중 고래가 죽은 채 떠 있어 배에 묶어 끌고 왔다"고 말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m, 둘레 2.5m 크기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FTA시대 "이젠 생명농업"

### 제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주제 선정 10월24일 나주 산포면 전남농기원 개막

제 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친환경 생명농업! 미래 희망과 도전'이란 주제로 오는 10월24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친환경농업관을 비롯해 생명에술관, 녹색제품관, 지역농업 특화관 등 17개 전시·판매관이 운영된다.

특히 친환경농업관과 지역농업 특화관은 친환경농업 신기술 배

터와 전시관으로 연계되고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 판매장터도 운영된다.

또 소비자인 고객들의 농작물 수확 체험과 천연염색 등 15종의 체험마당, 도립국악단 공연 등 10종의 공연과 경연 등 이벤트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생산자인 농업인이

홍보와 판매에 직접 참여하는 등 농업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65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친환경 농특산물 수출계약 70억원, 구매액 125억원, 현장 판매 5억원 등 200억원의 직접 소득을 올릴 방침이다.

한편 중견 탤런트 백일섭씨와 인기 가수 최유나씨가 홍보대사를 맡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농협중앙회 등 12개 단체가 후원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영암군의회 '지명찾기' 나선다

### '목포우편집중국' 등 타지역 명칭 바로 잡기로

영암군의회가 지명 회복운동에 나섰다. 영암군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홍보를 위한 '영암 제대로 알리기 범 군민 운동' 선포식과 함께 영암명칭 사용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영암은 월출산과 400만 평의 대불국가산단, 세계 5위의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들어선 서남권 최대의 산업지역인데도 대불산단을 '목포대불산단'으로, 호텔

현대를 '호텔현대목포'로 부르고 있다"며 "특히 일부 기관과 업체들은 알뜰한 상술로 영암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목포'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영암지역 입주기관과 업체들은 영암 제대로 알리기 범 군민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단호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군의회가 이 운동을 벌이게 된 데는 이날 맡게 영암군 삼호읍에 들어설 '목포우편집중국'이 발단이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목포시와 영암군 등 전남 서부지역 7개 시·군의 우편물무를 수행할 우편집중국 명칭을 '목포'로 확정했다.

이에대해 군은 "영암에 위치해 있는 우편집중국이 타지역 명칭으로 불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측은 "여러 지역 우편물을 일괄처리 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고려해 '목포우편집중국'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영암군 요청을 거부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 완도군, 불친절 공무원 가려낸다

### '공직자 베스트 친절운동' 전개

완도군이 불친절 공무원을 뿌리 뽑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 베스트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불친절 공무원들 때문에 군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감도 높은 친절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군청사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

원들의 친절 여부를 파악하는 '민원 이력제'를 도입, 불친절 공무원을 가려내기로 했다.

또한 3개월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 하위그룹 30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특별 교육은 물론 모든 인사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절 공무원 2명을 선발, 해외연수 및 포상, 인사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4월 2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4. 19(목) 09:30
- 모집기간 : 3. 20(화)~4. 19(목)
-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 수강료 : 210,000

##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세계최초 특허출원!! TV나 PC Monitor에 연결, 언제나 쉽고 빠르게~

##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적의 영어학습방법 AMS로 단축된 영어의 세계를 만나자!
-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10배 이상 빠른 획기적인방법
- 특목고 조기 준비생, 각종 영어경시대회 빠른 선행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최적코스

[성공사례 | 퍼펙트 AMS]

◆상수상장 학생 조소현 (13세, 00초등학교 6학년 인턴)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겠지"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진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확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학원을 중지하고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학교재엔 영어뿐만 아니라, 일상 상~사조의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각종 영어 능력시험 등은 속원말로 거저먹기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상상장 학생 신지영 (16세, 00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문장을 읽으면 친구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한다고 부러워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모님들 또한 좋아 할 수 있는 말씀까지 들어있어 저의 부녀는 매일 말씀을 들어 놓으며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어학교재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겠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AMS의 활용분야

각 가정, 모든 학생 필수 -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주부, 일반등 전과정 단계별·수준별·영역별 8000개의 콘텐츠로 완벽구성

(주)AMS교육 대표 전화 1600-0596